수십만 생명 스러진 한국전 최대 격전지에 평화의 북소리 울리다

■ 조계종 화천군 세계평화합동위령제 봉행 현장

6·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격전지였던 강원도 화천 파로호. 당시 주요 전략교급원이었던 화천댐 탈환을 위해 격렬한 전투를 벌이다가 파아를 만든라고 10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비극의 현장" 이다. 정전 60주년을 맞아 지난 12일 평화의령이 모인 이곳에서 산화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세계평화합동위령제가 봉행됐다. 특히 이번 위령제는 이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고 전쟁 때 숨진 모든 이들을 위로하는 이례적인 행사여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13일 봉행된 세계평화합동위령제 중 천도 영산대재. 화천=김형주 기자

이날 오전부터 세찬 빗줄기가 행사장을 적셨다. 파로호에 묻힌 젊은 넋들이 흘리는 눈물인 것 같았다. 조계종 어산어장 동주스님의 천도 영산대재가 두 시간 동안 진행되는 내내 비는 그칠 줄 몰랐다. 양산에는 한국 뿐 아니라 중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 20개국 참전국 참전용사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다. 천도재는 고인의 극락왕생과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으로, 자신이 짊은 업장의 업에 이끌려 새로운 생을 받아 윤회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의식이다. 유교적 전통의례인 제사를 뛰어는 제(祭)와는 양안의 성격이 다르다. 약 두 시간 동안 스님들이 천수대비, 법고무, 화심곡, 축원 등이 엮여져 펼쳐지자 참석자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고인들을 추모했다.

이어 오후3시부터 화천 백암산 파로호 전투로 산화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전국적인 행사가 시작됐다. 팔월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3000년간 까지지 않은 불 '평화의 불' 점화식이 거행됐다. 이날 화천에 도착한 작은 평화의 불씨는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난복같은 해소와 한반도 평화유적을 기원하기 위해 부처님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에서 채화됐다. 서울 조계사 주지 선묵스님은 평화의불을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화천군 강원도지사, 한기호 국회의원, 김정수 한국이산단체 협의회장, 슬로보단 마리안마치 주한미교사팀 방문단장 등에게 전달했다. 평화의 불꽃이 함자게 타오른 순간 커다란 박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날 추도사를 통해 전몰자들의 아픈을 보듬고 다시는 생명을 등한시 하는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또 이 땅에 묻힌 젊음과 고귀한 생명이 영원한 평화가 되어 이 산하로 돌아오기를 염원으로 발원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우리의 수많은 아해지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우리의 형제자매가 스러지고 원하지 않는 이별을 해야 했다. 미국, 영국 등 UN연합군,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수많은 참전국의 선량이 자신의 나라도 돌아가지 못해는 값은 상처를 거둬야 했다"며 "우리 민족은 이념의 갈래 찢어가 갈렸고, 반대편에 서 있다는 이유로 같은 일굴인데도 총부리를 겨눠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땅에 산화한 한 생명 한 생명을 살피면 소중하지 않은 이가 없고, 고귀하지 않은 이가 없다"며 "화해노예서 생명을 가진 미물 하나하나 그 목숨을 구해가 위해 온몸을 희생한 전쟁터 한국전쟁의 희생가 아로새겨진 이 땅을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자"고 역설했다.

사회 각계 주요 인사들이 평화기원 메시지도 이어졌다. 정용원 국무총리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6.25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자유 평화 수호하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굳게 다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세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바탕으로 정성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앞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분단과 전쟁, 분노의 땅 강원도가 평화와 번영의 뱃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원한을 씻어내고 평화가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최 지사는 "얼굴도 모르는 젊은이들이 서로 죽어고 죽은 역사가 이제 종식되고, 에워도은 영혼들이 피와 눈물이 스며지 않은 곳이 없다"며 "이제 그 한을 품고 안식과 평화 속에 유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추모사에서 최근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난 점을 강조하며 오랫동안심 중국군병 무릎꿇다는 뜻으로 이슬만 대통령이 의장 이름을 붙인 "바로로" 전 계량을 주장했다. 최 지사는 "중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와 정치군사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나라로 발전했다"며 "서로 흔들 거보단 전 세계 젊은 영혼들이 화해를 기원한다"고 피력했다. 정강철 화천군수도 "남북간 신뢰형성을 기반으로 세계평화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대사를 대표해 슬로보단 마리안마치 세인트마 대사의 감사 연사도 있었다. 슬로보단 마리안마치 대사는 "한국전쟁에서 피아를 초월한 모든 희생국의 넋을 위로하고 후손 뿐 아니라도 전쟁에게 영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자리다"며 "과거를 알고 존중해야 현재의 어려움을 해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 법구 시이에 희생된 각국의 장병들의 제위들이 적혀있다.

> 조계종 강원도 화천군
> 13일 합동 위령제 봉행
>
> 6·25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 화천 파로호 일대서
> 안타깝게 목숨 잃은
> 28개국 10만여 희생자 추모
>
> 천도 영산대재 추모식
> 위령탑 건립 선포식
> 평화콘서트 등 열려
> 전 세계 평화 울려 퍼지길 염원

특히 불교의 영산대재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다. 슬로보단 마리안마치 대사는 "영산대재는 고인의 평화로운 안식을 기원하는 것 뿐 아니라 부처님의 세계로 안전하게 인도하고, 살아있는 사람 모두를 진리의 세계로 이끄는 의식"이라며 "참여자도 마여금 용신께 메일음을 주는 이 특별한 의식에 함께 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연수 집행위원장의 편파선언 낭독이 있었다. 이 집행위원장은 평화선언을 통해 분쟁이 없는 평화를 염원하는 시대정신이 오늘 이곳에서 개최하는 세계평화합동위령제를 시작으로 '나비효과' 를 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닿아 세계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 등 주요 내빈의 헌다, 위령탑 건립 선포식과 세계평화의 종 타종 등이 이어졌다.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화천군 도지사 등은 종교와 인종 간의 갈등, 이념의 초월을 의미하는 뜻에서 3번 타종했다. 종교를 영원하는 뜻에서 조계종 세계 평화대종은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포탄 등 무기류의 철물 이용해 만들었다.

행사는 전 세계 평화가 울려 퍼지기를 염원하는 평화콘서트로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조계종과 강원도, 화천군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외교부와 통일부, 문광체육관광부, 등에서 후원했다. 행사에는 재무부장 원변스님, 문화부장 진명스님, 사회부장 법관스님, 포교부장 정안스님, 포교국장 손묘스님, 사회국장 성원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교역자 스님들을 비롯해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변스님, 사찰 불교사 주지 선광스님, 보산 종정사 주지 심산스님, 이계명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윤영해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장, 정진원사 등 500여대덕이 참석했다.

한편 화천군은 평화의댐 일원에 국비, 민자, 성금 등을 투입해 세계평화위령탑 건립 등 세계평화위령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세계평화 순례지로서 남북 간 긴장감의 평화 정착 및 신뢰형성을 위한 것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화천=홍다영 기자

① 희생된 장병들을 추도하는 묵념.
② 도선사 주지 선묵스님이 평화의 불을 전하고 있다.
③ 한국전쟁의 처국이었던 중국을 포함, 참전국장병들의 위패들.
④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헌향 모습.
⑤ 세계평화위원합 건립 선포식.
⑥ 참전국 외교사절과 미스워니버시티 한국캠가들이 헌화를 했다.

■ 파로호전투란)

국군 제6사단이 중국군 3개 사단과 전투 사상자 1만여 명에 이르러

6·25전쟁 당시 강원도 화천군 파로호에서 국군 제6사단이 중국군 3개 사단과 벌인 전투다. 국군은 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중부전선승에서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었다.

1950년 10월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국군이 유리했던 전쟁은 순식간에 역전됐다. 무려 40만 명에 달하는 중국군이 이른바 인해전술로 인해,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국군과 연합군은 급히 남하해야 했다. 1951년 1월쯤 서울이 다시 함락되었으나 3월 대한민국은 재탈환했으며, 이후 연합군과 중국군은 38선 북근에서 일진일퇴를 반복했다.

파로호전투는 중국군이 5월 대공세 계획에 따라 감행했다. 1951년 5월17일 밤 중국군 약 25만5000명이 북한강을 따라 한강 합류지점에 진출했다. 그러나 1개 제24사단과 국군 제6사단이 분투해 이들을 격퇴했다. 특히 6사단은 화천산과 화천강을 잇는 전선에서 중국군 제6군 예하 3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화천지역까지 도주하는 적을 쫓아 섬멸했다. 국군의 승전으로 전쟁 이전 북한의 영토였던 화천을 수복했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이를 기념 화천댐의 이름을 '오랑캐 를 격파했다' 는 뜻의 "파로호(破虜湖)" 로 개명했다.

반면 파로호전투에서의 참패로 중국군은 대규모 출전계획 지양하고 현상지키를 위한 소규모 작전으로 전환했다. 5월 공세에는 18만 명의 중국군이 투입됐으며, 중국군 사상자는 약간 이 명에 이른다. 장명섭 기자